

IMF Survey

IMF 지배구조 개혁

IMF 상임이사회, 광범위한 지배구조 개혁을 승인

IMF Survey 온라인
2011년 11월 5일



개혁의 핵심은 IMF 쿼터를 2 배 증가시켜 6 퍼센트의 쿼터 지분을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IMF 사진)

- 투표권을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대폭 이전
- 상임이사회 개혁에 따라 이사들을 전원 선출하고 대표성을 강화
- IMF 쿼터를 약 7,550 억 달러로 2 배 증액

IMF 상임이사회는 주요 20 개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G-20)의 리더들이 한국 서울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IMF 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승인했다.

“이 개혁은 쿼터와 투표권을 한데 합쳐서 대폭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개혁입니다. 이것은 IMF 에 있어서 역사적인 개혁입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계 10 대 국가를 정당하게 대표하는 10 대 지분국(미국, 일본, 4 개의 주요 유럽 국가 및 4 개의 BRICs 국가)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순위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순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언급했다.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더 많은 투표권을 이전

개혁의 핵심은 IMF 쿼터를 2 배 증가시켜 6 퍼센트의 쿼터 지분을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 지분의 절반은 선진국(대부분 유럽의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되나, 미국도 부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분의 1 은 산유국(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으로부터 이전됩니다. 따라서, 모두 합쳐 80 퍼센트의 지분이 선진국과 산유국으로부터 이전됩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설명했다. “20 퍼센트만이 다른 신흥국들로부터 이전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187 개 회원국 중 110 개 국가의 쿼터 지분이 증가 또는 유지됩니다. 110 개국이 어떤 나라들인지 살펴보면, 그 중 102 개국이 신흥시장국 또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분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기금의 10 대 회원국은 앞으로 미국, 일본, 4 대 유럽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와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연방(BRICs, 박스 참조)으로 구성될 것이다.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주요 사실

- 모든 BRIC 국가들은 IMF 10대 지분국에 포함될 것이다.
- 6퍼센트가 넘는 쿼터 지분이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다.
- 최빈국의 투표 지분을 보존함으로써 이러한 국가들의 발언권이 유지된다.

쿼터 지분 이전 방법

- 조정되는 쿼터 지분의 대부분(약 80퍼센트)은 선진국과 일부 산유국의 지분으로부터 이전된다.
- 110개국의 쿼터 지분이 증액 또는 유지되고, 그 중 102개국은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개혁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조직의 조정이 IMF 상임이사회에 반영된다.

- 유럽 선진국의 의석이 2석 감소한다.
- 상임이사회 이사 전원을 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최빈 개발도상국들의 투표 지분을 보존함으로써 IMF 내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발언권이 유지된다. “국가들의 경제적 비중에 따라 어떤 사항을 처리할 때는 소국과 빈국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을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분을 이전할 때 최빈국의 쿼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빈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설정했고,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설명했다.

보다 정당하고 민주적인 상임이사회

모든 개혁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조직의 조정이 IMF 상임이사회에 반영된다. “유럽 선진국의 의석이 2석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의석 감소에 동의했고, 또한 의석 조정 기준과 일정에도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완료되면 단지 쿼터 변동을 반영하여 상임이사회에서의 신흥시장국의 의석이 2석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언급했다. 이러한 합의의 일부로, 모든 상임이사회 이사들은 투표로 선출될 것이다.

상임이사회는 2012년 10월에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릴 때까지 쿼터 증액과 재조정을 발표시키고, 2012년 말로 예정된 차기 상임이사회 선거 이전에 상임이사회 개혁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일정을 승인했다.

또한 상임이사회에서는 쿼터 개혁이 발효될 때부터 시작하여 상임이사회의 구성을 8년마다 검토할 것에 합의했다. 상임이사회의 구성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은 소련의 붕괴 이후 급증한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수용하기 위해 상임이사회 의석을 20석에서 24석으로 확대했던 1992년이였다.

쿼터의 2배 증액

IMF의 주요 재원인 회원국들의 쿼터는 2008년의 쿼터 및 발언권 개혁에서 합의된 대로 14차 일반 쿼터 심사 결과에 따라 2,384억 SDR로부터 4,768억 SDR(현재 환율로 약 7557억 달러)로 2배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의 일부로, 이 기금에 추가 대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IMF와 IMF 회원국 그룹 사이의 재원 보충 협정인 신차입협정(NAB)은 물백된다.

또한 상임이사회는 새 쿼터 계산 공식을 2013년 1월까지 결정하고, 차기 쿼터 심사를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14년 1월까지 완료할 것에 합의했다.

이 새로운 합의가 발효되려면 IMF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서 85퍼센트의 다수 표결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